

年」雍正元年癸卯 十三年」乾隆元年丙辰 十四年」初二創年數合計三百四十八年」乾隆十四年己巳正月初十日」三重創具年畢功」此後開封者詳知寺甚」

後錄

大施主秩

時僧統嘉善釋敏俊」錢文拾兩正祖全貳石」嘉善釋普益錢伍拾兩」嘉善金頌才錢文貳拾四兩」嘉善釋海玄錢文拾兩」通政釋道心錢文拾兩」通政釋會休錢文拾兩」通政金興之錢文拾七兩」嶺南都居士敏源錢文貳拾兩」嘉善釋致學正祖全參石」嘉善釋善悟奮二斗落只」嘉善釋碩連奮二斗落只」嘉善釋允言正祖全貳石」嘉善釋弘淳錢文貳拾兩」嘉善」一全」快天」嘉善」機明」即和」嘉善」漢晶」淨學」嘉善」惠安」錦用」嘉善」順熙」照日」嘉善」大悅」匠玄」嘉善」陳萬芑伊」法雲」通政曹巨雲」瀉察」前判官李黃伊」法心」大師圓鑑戒明」孫應守」呂閑」姜世希」晋冶」通政朴進雄」益玄」朴信奉」近清」判官朴文赫」處寬」姜召吏」惲雲」嘉善」就全」濇初」通政靈淡」淨行」日心」擔常」幸淨坦淑」朴廷佑」最眼」李察官」普哲」通政就雲」漢清」日摠」鵬博」錦奎」處益」管行」知心」金召吏」就性」林莫黃」朗玉」雷聲」順明」通政」心悅」躬益」最均」元性」吳石乙伊」貴贊」致建」大演」敏閑」淨源」登陸」雪輝」日能」金世甲」管玉」守閑」孟是」大修」錦淑」善白」太允」普益」體活」國印」體常」電遠」體文」老念」性彩」位學」致宗」天己」敏性」惠敏」清演」日柱」偉心」戴卯」鶴性」通政秋淡」就文」欣淨」會眞」管奎」福連」錦玄」信海」登陸」善允」斗元」法英」致敏」覺慧」子眞」嘉善」自明」自印」嘉善」尚湜」管摠」通政國和」勝敏」忠信」勝哲」黃月中」楚寬」敏淨」日性」日湖」

弼」日性」字性」忠信」彩明」太益」敏淡」濇摠」摠演」福希」益察」双允」益清」秋瑞」海俊」證眞」廣習」法安」濇希」錦守」斗摠」最均」方是」日奎」性悅」戒白」濇寬」快心」智益」管哲」斗心」德印」清演」福修」鶴性」大演」偉心」正順」偉學」淨源」德守」管玉」德永」孟是」錦淑」太允」福宗」倅熏」濇輝」倅常」倅輝」倅闊」

三潤秩」公事員通政海玄」營首僧」天己」辛官首僧」元性」三寶」明信」佛糧持事」道淳」寺門持事」瑞敏」山監官」日能」書記」方信」時僧統嘉善敏俊」山中大濇秩」國」都大禪師雪松堂演初」大禪師四松堂最日」大禪師靈堂南鵬」大禪師圓鑑」大禪師月谷堂達性」山中老濇嘉善弘贊」大濇證軒」大德」密悟」光濇嘉善」機明」自明」致學」致敏」允言」二全」敏贊」善悟」守閉」

大目秩

大目通政釋靈淡」副通政釋致性」副會世遠」副通政釋會淨」釋會眞」釋法英」金太先」釋倅演」倅輝」片手鐵物兼供養大施主」李連元兩主倅倅」

徠化秩

乾祖別座倅鵬節兒師第」都別座通政管照」供養主順明」斗行」處益」負不饒心」左片收就文」右片收偉心」副化主月敬」錦淳」居士文淑」引勸大施主前判事釋管玉」成造都嘉善釋允言」大化土月谷堂大禪師」達性」謹書封」一七・五cm×四三・〇cm」別座管照」都監允言」化士達性」乾隆十四年己巳一月二十」四日」時上樑記」謹封」四二cm×四六cm」

(慶南昌寧郡昌寧面玉泉里 所在寶物第二二號 觀龍寺大雄殿 解體補修中 一九六五年 八月二十日 午後五時三〇分 中央間 宗道里에서 上樑文이 나았음)

林先生斗春香집

金元龍

慶州에發掘外던 唯一한 休息娛樂은 皇南里의 所謂 족셈이라는 酒街

에 가서 慶州法酒나 막걸리마시는 일이다. 큰 古墳을 지나서 좀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집마다 술집인데 그것이 모두 普通 民家로 되어 있고 看板이 없기 때문에 이 골목안에서 만든 열집에 잘 못 들어가서 술 판니까 물어봐도 主人이 화를 안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집에 들어가면 시골색씨가 하나 둘 있어서 간단한 床에 特大접으로 술을 받아주는데 지금은 그 색씨의 모습도 數도 많이 달라졌지만 十餘年前만 하더라도 어딘지 田園美와 霧圍氣가 있어 술값도 싸고 술도 좋거니와 「니 뭐라카노」해가면서 一夕을 보내기란 참으로 旅行味가 있고 또 旅苦를 풀 수 있는 것이었다. 그때 當時의 國立博物館職員들로서 慶州에서 古墳發掘을 한 사람은 모두 제대로 自己가 世上 最高の 美男子라는 自負를 갖고 이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며 나오게 되는 經驗이 있으며 한발 더 나가면 아무집은 아무개의 妻家집이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수도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쪽생의 어느 집에 林先生이 잘 가던 단골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 있는 나이 어리고 어여쁜 시골 색씨가 바로 春香이었다. 林先生은 自他가 共認하는 天真爛漫한 愛酒家라 慶州에서는 자주 그 집에 들리고 또 남에게 春香의 長點과 韓國的美를 宣傳하곤 했는데 무슨 特殊한 關係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리어 周圍에서 春香이 春香이 해가지고 그 집을 林先生妻家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하루 作業을 마치고 宿舎로 돌아가는 途中에 길가 순대국집 앞을 지나가게 될것일 때 林先生이 히죽 웃으며 꼭 한잔만 합시다. 하고 먼저 들어가는데 우리들도 그럴 氣分으로 들어가 앉지만 一杯後一杯하다가 보면 또 英雄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林先生을 先頭로 세우고 또 그 妻家로 遠征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林先生은 그 特有的의 好人같은 웃음을 滿面에 터뜨리며 呵々 大笑 談論百出해서 서로 時間가는 줄을 모르고 하였다. 그런데 林先生은 藥酒를 자시면 大醉하지 않았어도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癖이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林先生 열골에 그런 조그만 傷處만 있으면 하하여제 一杯酒하셨구나 금방 알곤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十餘年前의 일이며 그런 大酒의 勇氣나 能力이 彼此 없어지고 말았고 그때의 靑年들이 모

두 稱老하는 初老들이 되었다.

지난 여름 慶州에 갔을 때 알아본즉 春香은 그 職業을 그만둔지 이미 오래고 아무리 옛記憶을 더듬어도 그 春香이 집이 그 골목 어느 집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故友는 가고 人生이 차츰 차츰 忘却의 寂寞속에 사라져가는 모양이다. 書室에 終日 獨坐해서 窓間을 내다보니 이제 白露의 黃葉도 늘어나고 最後의 ��암소리 들은지가 꼭 한달하고 一週日이 되었다. 피우다 남은 시가 一를 남기고 永遠의 世界로 돌아간 林先生이 별다른 意味에서 몹시 親近하게 느껴지는 날이다.

(六五、一〇、九日 한글날)

## 故 林泉先生任을 回顧하며

崔 容 完

작은 몸집에 검소한 옷차림 그리고 무관심하게 뒤로 넘긴 머리칼은 어딘지 조용한 모습이 시면서도 가느스름한 눈매로 쳐다 보시는 날카로운 視線은 서울南大門 補修工事가 시작될 무렵 林先生님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이었다. 다섯해 동안 자주 뵈고 때로는 모시고 일하는 기회도 있었으므로 先生의 생생한 모습들은 어제일처럼 선연하다.

再昨年 가을에 慶州 佛國寺 安養門 新築工事와 石窟庵 補修工事に 先生 生員에서 補助하는 數個月 동안 일에 執念하는 이외의 어떤 사사로운 時間도 先生의 生活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시면 곧 현장에 가서서 밤새것이 이리 높고 저리 높고 하시며 궁리하셨던 方法을 實物에 맞추어 보신다. 잠드시던 중에도 무엇인지 새로운 着想을 얻으시면서 숨치않고 자리를 걷고 불을 켜다 음 즐겨하시던 담배를 태우시며 이야기 하신다. 혹은 오밤중에 산길을 더듬어 現場에까지 가서 밝혀내고서야 다시 자리에 돌아와 잠들 수 있는 때도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손수 해치